

담배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것은 사람의 권리로써 다른 사람이 규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몸에 해롭습니다. 그것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에서는, 수십년간 담배를 핀 어떤 남자가 폐암에 걸리게되자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는 일종의 기호품입니다. 예를들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초콜렛을 먹고, 맥주를 마시는 것처럼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 사람의 기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에게도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할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남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여자가 담배를 피우면 싫은 표정으로 나쁜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몇 년전, 여자가 지붕이 없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을 물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은 곧 사라졌습니다. 남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담배를 피는 모습을 여기저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는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레스토랑, 버스나, 전철 등의 공공장소에서는 스스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칙이 없어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세상은 좀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